

---

# 유네스코의 문화와 언어다양성 보존 노력

김귀배·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

## 1.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위기

21세기에 들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문화 다양성의 증진은 기본적으로 각 문화는 인류가 지닌 창조적 잠재력의 발현이자 인류 성장 및 발전의 동력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문화적 활동에 대한 국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거대한 문화 기업이 독점력을 넓혀 감에 따라 문화 다양성은 그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는 풍요로움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에 있어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무형 문화유산이다.

많은 민족들, 특히 소수 민족과 토착민에게 무형 문화유산은 역사에 깊이 뿌리박힌 정체성의 근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통 음악, 춤, 축제, 수공예품 제작 기술, 구전 문화 및 방언과 같은 여러 표현 형태들이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전통문화가 일률적으로 국제 문화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

보 배분과 교통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역 문화는 더욱 그 특성을 잃고 주류 문화, 강대국의 문화에 흡수되고 있다. 벌써 우리 주변에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소중한 무형 문화유산을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잃어버리는 사례를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언어는 무형 유산의 중요한 범주 중의 하나로서 인류는 언어를 통해 각각의 문화와 행동 양식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다. 각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 자연적 환경과 교감하며 세상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생각과 철학 체계를 형성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양식이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피지배국의 언어를 말살하고 새로운 언어를 강요하는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단위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중요한 실수인 것이다.

## 2. 언어 다양성의 위기와 보존 노력

오늘날과 같은 지식 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의사 결정이나 사회적 참여 그리고 인류 발전의 중요한 원천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같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양질의 지식이나 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인간의 사회 참여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도구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은, 이 과정에서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언어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이상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즉 언어는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가치 체계, 문화적 표현의 핵심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어 다양성은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인류의 살아 있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 2.1. 소멸 위기에 빠진 언어들

문화 다양성이나 생물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되면서 국

제적으로도 언어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228개국에 6,809종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한다. 전 세계 언어의 20%가 문자 형태가 없는 구술 언어라고 한다. 즉 그만큼 소멸될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 언어의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확히 '한 언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정의로부터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방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학적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여 개에 가까운 언어의 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네스코에서 제공하는 언어에 대한 기본 정보는 매우 흥미롭다.

- 지구상에는 약 6,000~7,000가지 구술언어가 있고 같은 수의 수화가 있다.
- 한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평균치는 5,000~6,000명 정도이다.
- 전 세계 구술 언어의 95% 이상이 백만 명 이하의 모어 사용자를 갖고 있다.
- 약 5,000종의 구술 언어는 100,000명 이하의 화자가 있다.
- 약 3,000종 이상의 구술 언어는 10,000명 이하가 사용한다.
- 약 1,500종의 구술 언어와 대부분의 수화는 1,000명 이하가 사용한다.
- 1999년 조사에 따르면 약 500종의 언어는 100명 이하가 사용한다.
- 83~84%의 전 세계 구술 언어는 고유하다. 즉 한 국가에만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메가(mega: 백만)-언어를 전 세계 인구 중 95% 이상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표준 중국어: 874백만), 힌디어(366백만), 스페인어(358백만), 영어(341백만), 벵골어(207백만), 포르투갈어(176백만), 아랍어(175백만), 러시아어(167백만), 일본어(125백만), 독일어(100백만)순이며 이 언어들이 모든 언어의 1%도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출처: 2002년 '에스노로그' 제14판).

세계화 속에서 공동화되고 있는 언어 다양성의 위기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수 세기에 걸쳐 특히 유럽의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15세기 이래로 이미 수백여 종의 언어가 소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언어의 독점화가 심화되면서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세계 언어의 90% 이상이 인터넷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네스코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 지도'의 최신판은 전 세계 언어의 절반 정도가 일정 부분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존하는 구술 언어의 90%가 금세기 말에는 소멸되거나 거의 소멸될 것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최신호에서 보도하고 있다. 소수 언어는 약 2주일에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 2.2.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

유네스코는 창립 이래 '문화의 풍요로운 다양성 증진'을 기구의 주요 임무로 정하고 문화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다. 2001년 채택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문화 다양성 협약)'은 문화 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한 국제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2001)은 언어와 문화의 동질화를 반대하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선언의 실행 계획은 이를 반영한 몇몇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 창조 전파를 지원하기 위해서(5조)'도 그중 하나이다.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벨 계획(Initiative Babel)이다. 바벨 계획은 문화 다양성의 중요한 범주인 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언어 관련 정책 연구 사업의 수행, 문자 체계 개발 지원 사업, 인터넷상의 다언어주의 보고서 작성, 다양한 언어로 된 문화유산 지식 기반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이 바벨 계획을 통해서 지식 사회를 건설하고 누구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네스코의 세계 평화라는 이념을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3가지 차원의 전략, 즉 소수 언어 보호 정책 수립, 대중들의 인식 제고 그리고 시범 사업의 실시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주로 전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 속에서 다언어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위험에 처한 언어와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바벨 계획은 유네스코가 채택한 '다언어주의의 육성과 사이버스페이스로의 보편적 접근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use of multi-lingualism and universal access to cyberspace, 2003)' 같은 국제적으로 채택된 규범을 실제로 적용시킨 좋은 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 유네스코는 인류의 살아 있는 유산의 핵심으로 언어를 규정하고 사라져 가는 소수언어와 언어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위험에 처한 언어 프로그램(UNESCO Endangered Languages Programme)을 운영해 왔다. 여기에는 언어의 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언어 다양성 증진을 위해 UNESCO-UN 파트너십 프로그램, 유네스코 소멸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지도화 사업이나 지역 역량 강화와 언어 정책 진흥 사업, 소수 언어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소멸 위기의 언어 보호를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각 회원국에게 위험에 처한 언어에 대한 조사와 목록화 사업, 교육 시스템, 미디어, 사이버 세계로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 언어 인권의 존중을 통한 지역민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 고양 등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 2.3.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결작선의 의의

국제 사회에서 전통 구술 언어를 포함한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소중한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결작선' 제도를 운영해 왔다. 비록 2005년을 마지막으로 무형 유산 협약 사업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그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2005년까지 90점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오늘날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벨리즈 등 중앙아메리카 대서양 연안 지역에 살고 있는 가리푸나족의 가리푸나어와 무용, 음악(The Garifuna Language, Dance and Music, 2001)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가리푸나어는 이라와크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수 세기에 걸친 핍박과 언어제국주의를 견디 내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언어는 우라가(uraga)라고 하는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우라가는 원래 의식이나 대규모 모임에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리푸나어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오늘날 이 이야기는 점점 잊히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이주, 민족 간 차별 그리고 학교 제도에서 가리푸나어의 소멸 등이 가리푸나어의 존속에 위협 요인이 되어 있으며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언어에 숙달하지 못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01년 등재를 통해 이 언어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에콰도르와 페루 두 나라에 걸쳐 있는 자파라족의 구전 유산과 문화적 표현물(The Oral Heritage and Cultural Manifestations of the Zápara People, 2001)이다. 2001년 등재된 이 언어는 자파라족이 아마존 중심부에 위치한 덕분에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풍부한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언어 가운데 꽃과 동물을 가리키는 어휘가 풍부하며, 자파라족의 우주관, 신화, 의례, 예술행위, 언어 등이 표현되므로 사실상 언어가 그들 민족의 역사와 신화와 전설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에스파냐의 정복, 노예제, 역병, 강제 개종, 전쟁, 산림의 황폐화 등 수 세기 동안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잘 보존해 왔다. 그러나 현재 자파라족은 다른 종족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자파라족 전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300명 미만인 인구 가운데 그나마 자파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일흔 살이 넘는 5명뿐이라고 한다. 에콰도르와 페루 정부는 이 언어의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선 등재를 계기로 복원 계획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전수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4. 유네스코 무형 유산 보호 협약의 채택

국제 사회의 이와 같은 노력은 자칫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소멸될 언어의 보존과 육성을 이뤄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선 사업을 2003년 국제 협약 단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2003년에 채택된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2006년 초 가입 당사국이 30개국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2007년 8월 기준으로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이미 80개국 이 인준하였다.

무형 유산 보호 협약의 발효로 인하여 현재 유형 유산 중심으로 구성된 각국의 문화유산 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되어,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 문화유산을 위한 국제적 보호 장치를 만들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전 세계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규범인 이 협약은 전문과 총 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형 유산에 대한 정의, 정부 간 위원회 및 총회의 구성, 당사국의 책임, 무형 유산 목록의 작성, 국가 및 국제 사회에서의 의무,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형 유산 목록과 관련하여 2개의 목록을 작성하기로 되었는데 1) 인류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 2) 긴급 보존이 필요한 무형 문화유산 목록이 그것이다.

이번 협약은 자연, 유형, 무형 유산 간에 구별을 두지 않는 토착민들의 총괄적인 유산 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구성 체제에서는 1972년 세계 유산 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2조에 무형 문화유산은 무형적 요소뿐 아니라 이 무형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도구와 문화 공간 그리고 언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무형 유산 자체의 예술적 표현만 무형 유산이 아니라 그 유산이 창조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공간, 그리고 현재 재현되는 공간까지 무형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3. 맺는말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는 문화 발전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

시에 제공하고 있다. 예술적 창의성을 촉발시키고 문화에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확대시켜주는 반면에, 약자의 문화를 소외 또는 약화시키고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구화, 세계화, 상업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고 각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 지난 2005년 문화 다양성 협약을 채택하였다.

특히 언어는 지식 사회로 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도구로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의 문화 다양성을 공고화하여 새로운 창조성이 잉태되는 원천이다. 우리가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언어가 우리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넘어 과거와 현대를 거쳐 미래에도 우리 문화 발전의 중요한 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언어는 어느 유산과 달리 끊임없이 생산되고 진화되며 사회·문화적 영향과 충격에 민감하다. 언어가 사라지게 되면 언어와 더불어 공동체가 지닌 지식과 사상, 가치 체계의 많은 부분도 사라지거나 축소되어 보다 거대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종속되게 된다. 국제 사회도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발맞추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이를 잘 보존하고 진흥시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 참고문헌

UNESCO(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2003), Recommendation for Action Plans of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the Safeguarding of Endangered Languages.

David Harmon(1995), The Status of the World's Languages as Reported in Ethnologue.

유네스코(2001),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유네스코(2007), 제2차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 보고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5),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

에스노로그(2002), 에스노로그 제14판.

박성용(2006),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의미와 전망.

바벨계획

([http://portal.unesco.org/education/en/ev.php-URL\\_ID=1974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ducation/en/ev.php-URL_ID=1974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에스노로그 홈페이지(<http://www.sil.org/ethnologue>)

유네스코 본부 홈페이지([www.unesco.org](http://www.unesco.org))